

코로나19로 인한 충남 사회분야

: 사회심리 및 언론 역할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연구추진단 (사회통합연구실)

전지훈 초빙책임연구원(basillica@cni.re.kr)

장창석 전문연구원(mp0323@cni.re.kr)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응 연구추진단 연구팀 중 사회심리의 해당분야(사회심리, 언론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상황의 분석과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음

CONTENTS

1. 바이러스와 사회심리적 요인
2.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언론의 역할

요 약

-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 코로나19로 우리나라도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특정 종교 집단, 콜센터, 스포츠 강습활동 등 사회적 활동에서 촉발, 확산되었음
- ◀ 바이러스에 따른 위험사회의 사회심리적 요인
 - 바이러스는 재난을 촉발시키지만 재난의 위험은 인간의 사회문화적 속성으로 변화되어 확산 또는 축소됨
 - 특히 공포와 불안의 확산은 인포데믹스(Infodemics)와 제노포비아(Xenophobia)의 현상들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함
- ◀ 바이러스 대응의 사회적 방향
 - 바이러스에 대한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해 혐오와 배제를 극복하고 통합과 포용을 통한 연대의 가치 확산이 필요함
 - 포용적 가치 확산은 각자보다 공동체적 차원에서 함께 대응하고 상호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추구함
- ◀ 코로나19의 확산은 언론보도의 주요 이슈임
 - 확진자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면서 코로나19 관련 동향과 정부의 대응방향 등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의 언론보도가 이루어짐
 - 언론은 사회적 관리와 정치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언론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보의 왜곡과 증폭 등 역기능이 나타나며 사회적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중임
- ◀ 정보의 왜곡과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발생 예방을 위한 언론서비스 구조 개선 노력, 책임 검증시스템, 이용자 인식 변화 등의 노력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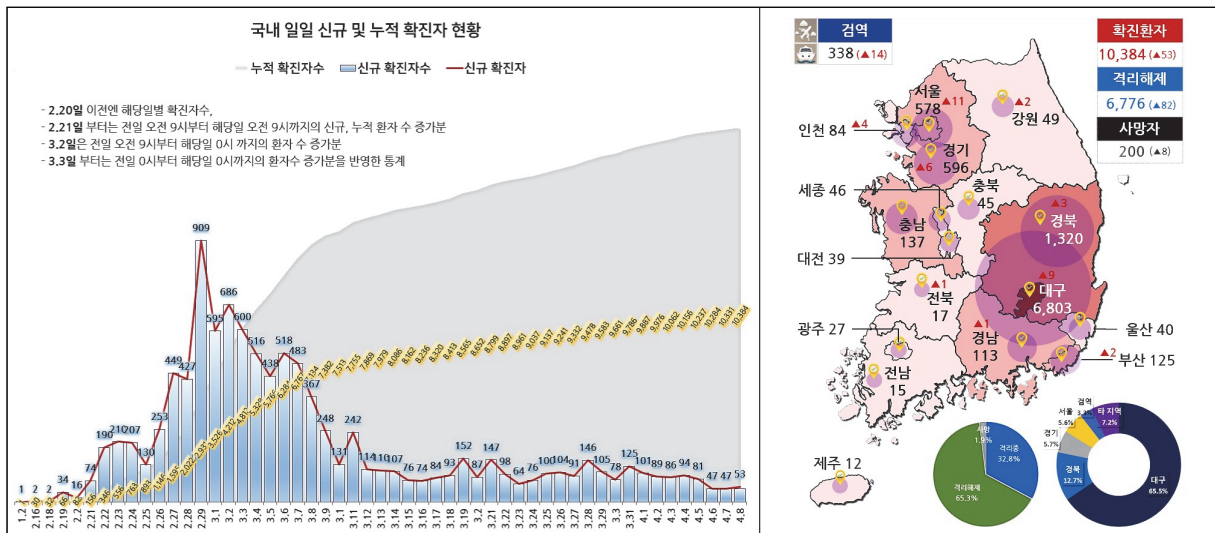
01

바이러스와 사회심리적 요인

1.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는 현재도 무섭게 확산세를 보이고 있음
 - 4월 8일 기준으로 확진자수는 미국이 387,547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확진세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확진자 10,384명, 사망자 200명으로 감염정도는 높으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음

코로나 19 국내 확진자의 종합 및 지역별 현황



자료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12275&cid=43667&categoryId=43667> (4월 8일기준)

- 현재 국내 코로나19의 확산은 사회적 활동이 주요한 원인임
 - 코로나19의 확산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연초부터 2월 중순까지는 확진자 30명 내외로 방역활동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단계였음
 - 하지만 2월 20일 이후 확진자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원인으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특정 종교집단(신천지 증거장막성전)의 활동이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
 - 현재 한국사회에서 코로나19 확산은 만민중앙교회(40명) 등 종교활동과 봉화 푸른요양원(68명)과 같은 집단요양시설 및 천안 체육시설(103명), 구로콜센터(98명), 해양수산부(30명) 등 직장 사회활동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파가 이루어짐
 -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제한과 재택근무 등의 조치를 실행하여 확산세를 잡기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2. 바이러스와 위험사회

- 바이러스와 같은 재난에 대한 위험사회의 경고
 -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현대사회에서는 바이러스 등 인류사회의 재난에 대해 정치적이고 사회적 조건들과 결합하여 사회문화적 성격을 갖는다고 봄
 - 울리히 벡은 재난 자체는 불가항력적이지만 재난을 확산시키거나 축소시키고 특정 계층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사회'라는 의미에서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진단함
 - 슬로빅과 같은 사회학자들은 '위험은 독립적 실체가 아니며 인간이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낸 주관적 이해'라는 점에서 심리적 생활세계의 요인임을 강조함
 - 결국 바이러스와 같은 인류의 위험은 바이러스 그 자체 보다는 바이러스를 마주하는 인간의 사회문화적 속성(공동체성, 신뢰, 계층의식, 포용성, 시민의식)으로 변증됨
 - 특히 바이러스의 경우 변이가 심각하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미지의 위험'으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사회적 파장과 충격이 다른 재난과 위험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음
-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정부의 대응
 - 현재 코로나19 이전에도 바이러스와 관련된 재난상황이 존재하였으며, 대표적으로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를 거론할 수 있음
 - 특히 2003년 사스에 비해 2015년 메르스 대처에 대한 정부활동이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는데 초동 대처와 정보제공의 미흡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증폭시켰음
 - 이처럼 국민들의 정부 불신은 공적주체의 신뢰보다 각자도생을 도모하는 공동체 해체의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매뉴얼에 따른 즉각적인 대처는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음

- 이러한 지점에서 현재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방역당국의 매일 정례브리핑을 포함하여 확진자의 동선을 최대한 공개하는 현재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다른 기타 국가들에 비해 확진자 수만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 큰 원인이기도 함

3. 바이러스 위험사회의 사회심리적 현상

- 위험에 따른 인포데믹스(Infodemics)의 확산
 - 바이러스와 같은 미지의 위험 요인은 사회적 불안과 공포요인이 쉽게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며 비가시적이고 번식 속도 또한 빠르고 원천적 봉쇄가 불가능한 속성을 지님
 -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인포데믹스(Infodemics)라는 용어가 제시되는데, 이는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s)의 합성어로 정보전염병으로 해석됨
 - 인포데믹스는 바이러스 감염병 자체에 대한 공포가 제한된 정보나 추측성의 루머와 화학적 반응을 형성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사회적 현상을 의미함
 - 인포데믹스는 바이러스와 같은 '미지의 위험' 상황에서 더욱 확산되며 '21세기 흑사병'이라 불릴 정도로 사회적인 동요를 통해 공공활동의 치명적 장애물로 거론됨
 - 따라서 실제 바이러스의 확산방지와 함께 인포데믹스 같은 사회적 위험요소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확한 정보의 올바른 유통이 필수적임
- 사회적 혐오와 배제: 제노포비아(Xenophobia)
 - 바이러스 창궐과 같은 사회적 위험상황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현상은 사회적 혐오와 배제임
 - 역사적으로 바이러스는 '미지의 위험 현상'이라는 점에서 합리적 대응보다는 사람들의 감정적인 배제와 혐오를 만들어 냈고 이러한 현상을 제노포비아(Xenophobia)라 규정함
 - 제노포비아는 이방인(Xeno)과 기피한다(Phobia)의 합성어로 이방인혐오증으로 불리는데, 상대방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혐오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였음
 - 코로나19 초기에 중국인의 식문화가 거론되면서 중국인 혐오증이 국내에서 확산되었고, 아산과 진천에서 벌어진 일부 교민 입국 시에 나타난 갈등도 연장선 상에서 볼 수 있음
 - 최근 대구경북 확산 이후에는 대구코로나로 불리며 일부에서 지역적 혐오현상이 나타났으며 한국에서 확산이후 서구중심으로 인종차별적 현상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기도 함
 - 이러한 제노포비아는 합리적 근거를 갖기보다 막연한 불안에 의해 감정적으로 발생하고 확산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활동의 장애물로 기능하게 되며 위험과 공포의 확산을 부추길 수 있음
 - 특히 바이러스 위험 감소 이후에도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경계를 갖고 극복을 위한 사회적 전환이 필요함

4. 바이러스 위험에 대한 대응의 방향: 포용과 연대

- 위험사회 극복을 위한 사회적 방향

- 바이러스와 같은 사회적 위험의 극복을 위해서는 혐오와 배제를 통한 각자도생의 방향보다 통합과 포용을 통한 연대의 가치 확산이 필요함
- 성장제일주의 가치 지향으로 야기된 공동체적 의미의 상실은 바이러스 이전부터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지적되어 왔음
- 결국 현재 우리사회의 재난과 위험을 불러일으킨 것은 불가항력적 바이러스의 전파였지만 이에 대한 확산과 종식은 방역체계와 함께 사회적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우리가 보여준 사회적 가치 지향의 모습들

- 코로나19 확산 초기 아산, 진천에서 우한 교민들의 수용측면에서 나타났던 혐오와 배제의 모습이 사회적 포용과 공동체성의 모습으로 대체된 경험이 있음
- 대구에서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대구폐렴으로 부르는 등 혐오의 시각도 있었지만 지금은 '힘대라 대구'와 같은 포용적 시각이 일반적임
- 전국에서 수백명의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으며 서울, 광주, 경기 등 광역 자치단체들은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자발적 이송을 요청하는 '병상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동체와 포용적 가치 확산

- 사회적 포용성의 확대는 위험사회가 도래했을 때 각자도생이 아닌 공동체적 연대와 협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원천임
- 포용성은 결국 특정 사회에서 이질적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공존하면서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함을 의미(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
- 보다 적극적 의미로 유럽연합은 구성원들 간 공동체적 유대, 가치의 공유, 소속감의 인식에 대한 사회적 확산이 포용사회의 모습이라 제시함
- 결국 현재의 위험상황에서 포용성은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 종식이라는 공동체의 공통된 목표를 인식하고 가치의 공유와 소속 및 연대주의 관점에서 신뢰와 협력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근거로 활용됨
- 이러한 관점에서 포용성 가치는 사회적 위험을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에서 함께 대응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합의와 신뢰형성의 기반이 될 것임
- 결과적으로 바이러스 위험의 극복방법은 일반적 사회적 문제와 다르지 않으며 정부 본연의 역할과 함께 공동체적 방향에서 가치의 공유, 연대의 사고에 기반해야 함
- 따라서 포용성과 신뢰의 형성은 바이러스의 위험상황에서 공동체와 우리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임

02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언론의 역할

1.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언론 보도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

- 호흡기 감염질환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근 국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임
- 코로나19는 각국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들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중임
-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코로나19와 관련한 뉴스들이 실시간으로 생산되고 보도되고 있는 중임

- 코로나19의 확산은 언론보도의 주요 이슈임

- 코로나19는 국내 확진자 30명 내외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단계에서 언론보도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짐
- 이후 확진자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면서 보도되는 언론의 대부분이 코로나19 관련 동향과 정부의 대응방향 등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음
- 특히 집중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진행과정의 긴박한 상황을 반영하여 대부분의 언론에서 국가재난사태에 준하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음
- 언론은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사회적 이슈(예방수칙, 감염경로, 피해상황 등)에 대한 관심을 부각 시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위험요소와 위험인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신과 두려움, 불안감 해소에 긍정적 역할로 작용중임

- 다양한 관점의 언론 보도

- 코로나19의 유행 초기 발원지로 거론되는 중국 우한 지역 거주자의 이동과 재외 국민의 지원 대책, 한국 수용여부에 대한 언론보도가 주로 나타남
- 이후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대구·경북지역에서 특정 종교집단의 활동이 원인으로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다루는 언론보도가 집중적으로 나타남
- 또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역별 집단감염(다중밀집 근무시설, 스포츠 강습활동, 해외여행객 귀국 등)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나 진행경과, 사회현상에 대한 언론 매체별 다양한 관점의 해석, 전망들이 보도됨

2. 재난상황과 언론의 영향력

- 언론은 사회적 관리와 정치적 측면의 중요 역할을 담당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이나 사회적 갈등 발생 시 언론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함
-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심리 불안 상태에서는 과학적 규명 보도와 시민계도 등을 통한 국가의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잡이 역할을 수행함
- 총괄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문제의 접근은 사전적 대응에 대한 사회적 여론 형성에 효율적임

- 언론의 환경 변화

- 국내 언론 매체는 전파 매체와 간행물 매체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양한 매체의 출현으로 집중도와 의존도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최근에는 인터넷 뉴스, 개인방송 등 변화된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는 언론 매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들 매체를 통한 정보의 습득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식적 언론 매체가 아닌 이를 통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현상은 언론을 단순제공자에서 각종 사회적 이슈와 갈등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공론의 장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표 1] 국내 방송산업 실태조사

구 분	사업자수 (개)	종사자(명)	매출액(원)	방송사업매출(원)	유료가입자(단자)
지상파방송	51(52)	14,355(14,288)	4조 3,003억(4조 6,176억)	3조 6,837(3조 9,987억)	-
지상파DMB	19(19)	59(69)	119억(112억)	114억(103억)	-
종합유선방송	92(90)	4,578(4,679)	3조 478억(3조 668억)	2조 1,307억(2조 1,692억)	1,404만(1,389만)
중계유선방송	44(49)	106(116)	46억(49억)	20억(25억)	6.1만(7.3만)
위성방송	1(1)	347(346)	6,468억(6,251억)	5,754억(5,656억)	325만(318만)
IPTV	3(3)	726(703)	32조 6,533억(31조 4,066억)	2조 9,251억(2조 4,277억)	1,433만(1,289만)
IPTV콘텐츠제공 (CP)	44(25)	-	12조 3,299억(1조 1,806억)	5,442억(3,482억)	-
방송채널사용	169(164)	16,644(15,791)	12조 3,475억(11조 3,762억)	6조 6,396억(6조 3,801억)	-
홈쇼핑PP	7(7)	5,338(5,136)	5조 1,566억(4조 8,927억)	3조 2,900억(3조 2,869억)	-
일반PP	148(142)	10,440(10,027)	6조 5,381억(6조 907억)	3조 946억(2조 9,399억)	-
데이터PP (DP)	14(15)	866(628)	6,528억(3,929억)	2,550억(1,533억)	-
합 계	423(403)	36,815(35,992)	65조 3,421억(52조 2,891억)	16조 5,122억(15조 9,023억)	3,167만(3,003만)

자료 : 2018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2018).

[표 2] 국내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구분	신문						인터넷뉴스 서비스	뉴스통신		잡지 등 정기간행물					계
	일반 일간	일반 주간	특수 일간	특수 주간	인터넷	외신		내신	외신	잡지	정보	전자	기타	외국 지사	
2015년	292	1,188	105	1,776	6,347	74	258	20	17	5,008	1,419	34	2,265	9	18,812
2016년	310	1,229	99	1,774	6,090	74	270	22	18	4,931	1,658	62	2,118	11	18,666
2017년	298	1,233	91	1,755	6,885	74	266	23	18	5,107	1,748	65	2,033	11	19,607
2018년	305	1,215	40	1,698	7,894	75	279	24	19	5,211	1,784	161	2,019	11	20,735
2019년	314	1,190	40	1,657	8,878	77	266	26	19	5,374	1,810	171	2,019	11	21,852
2020년	315	1,194	39	1,658	9,052	77	271	26	19	5,405	1,826	179	2,012	11	22,084
2019~2020년 증감(%)	1 (0.32%)	4 (0.34%)	-1 (-2.5%)	1 (0.06%)	174 (1.96%)	0 (0%)	5 (1.88%)	0 (0%)	0 (0%)	31 (0.58%)	16 (0.88%)	8 (4.68%)	-7 (-0.35%)	0 (0%)	232 (1.0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2020.3.19. 기준

- 언론의 환경변화에 따른 역기능

-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는 지역 여론 형성과 스스로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의 순기능을 수행하며, 이용자는 이런 보도를 통해 객관적 정보와 비판·감시·견제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음
- 하지만 환경의 변화로 인한 의견 표현의 자유로움으로 인해 심층보도가 아닌 선정적 내용의 기사 양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뉴스의 생산 등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많은 역기능을 발생시키고 있음
- 지역 내에서는 지난 1월 우한 교민 수용시설 선정 과정에서 부정확한 언론보도의 확산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간 갈등 증폭의 요인으로 작용함. 이후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갈등이 해결된 사례가 있음
- 또한 코로나19 감염자가 될 경우 감염자에 대한 대책과 치료보다는 감염자의 사회적 관계(특정 종교 가입, 이동 경로·접촉자, 일상생활 내용 등)를 두고 이해관계에 근거한 자의적 해석을 동반한 뉴스의 전파가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계층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으로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중임
-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사망자 대부분이 70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일부 청소년들이 SNS를 통하여 '부머 리무버(Boomer Remover)'라고 표현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힘을 발휘하는 기성세대와 이후 세대 간의 갈등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코로나19의 감소를 위한 노력에 반하는 사회적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음

3. 대응의 방향 : 이해관계자의 인식 변화

- 언론 서비스의 서비스 구조 개선 노력

- 전통적으로 신문과 방송을 통한 언론 정보의 습득에서 온라인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사회변화와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선택이 아닌 제공 정보에 대한 습득 형태의 서비스 이용이 주를 이룸
- 이러한 변화는 언론 정보의 정확성이나 매체에 대한 신뢰보다는 관심 내용만 습득하는 변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언론들은 서비스 공급사의 반복전송, 선정적 제목의 기사 남발 등의 현상으로 정보의 왜곡이 우려됨
- 언론 매체에서는 언론 본연의 순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자의적 노력과 사회적 논의를 통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책임 검증 시스템 운영

- 언론의 보도는 사회적 갈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최근 발생하는 왜곡된 언론 보도와 확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언론 스스로 사회적 책임과 공익성 유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선정적 기사 보도와 영리가 목적이 아닌 심층성과 중요성에 입각한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한 잘못된 정보에 대한 능동적 대처방안 마련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언론 스스로 보도 내용에 대한 책임 검증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대안제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지역 언론의 역량 강화

- 지역 언론은 올바른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필요한 매체이나, 앞서 논의한 언론 환경의 급속한 구조 변화는 지역 언론의 자생이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중임
- 지역 언론은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지역의 입장을 우선 대변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편향적이고 왜곡된 여론에 대해 일반화된 여론을 전달할 수 있는 중립적 입장의 운영이 필요함
- 지역 여론 대변과 합의 도출을 위한 도구로써 역량강화가 요구됨

- 이용자의 인식 변화 노력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언론 매체와 이용환경의 변화는 이용자의 선택과 올바른 정보 습득에 어려움으로 작용함
- 불안을 키우는 가공되고 변형된 정보로 이용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허위조작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중임
- 이와 별도로 이용자 스스로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역량과 인식 변화를 통해 언론의 보도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